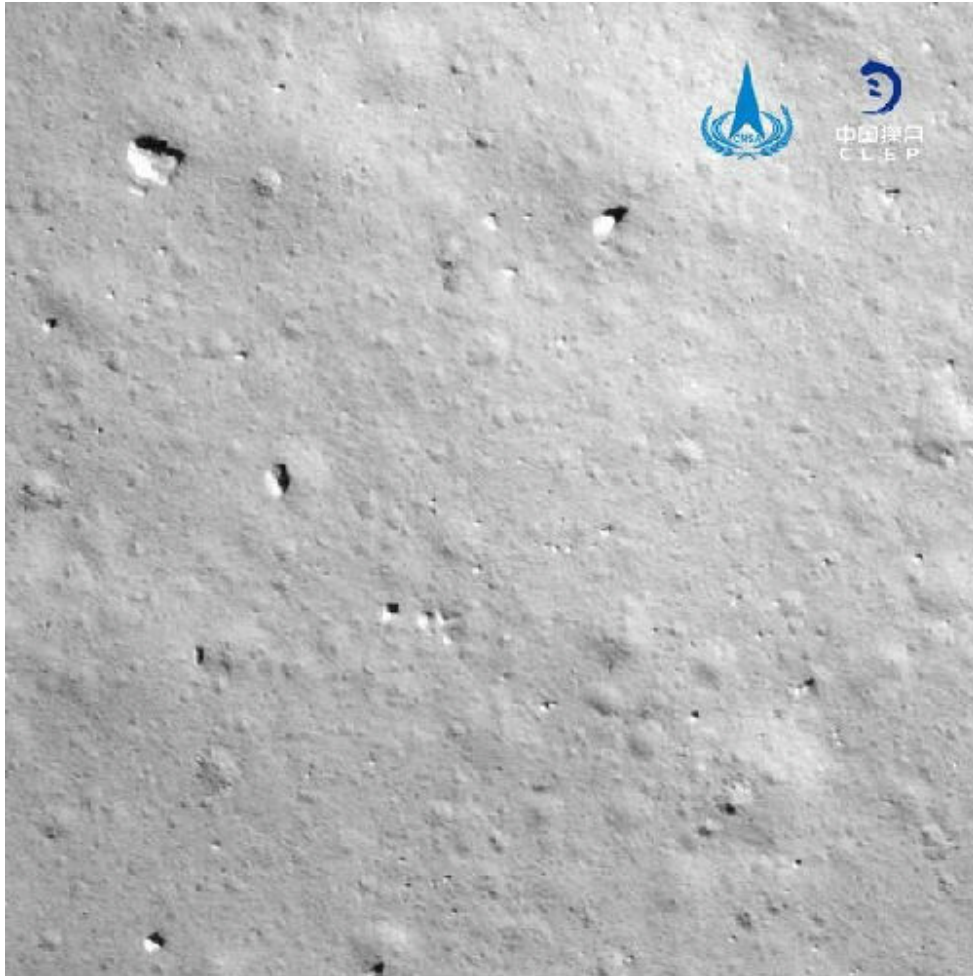


경향신문

중국 탐사선 창어5호, 달 표면 착륙해 시료 채취

기사입력 2020-12-02 14:02 최종수정 2020-12-02 19:4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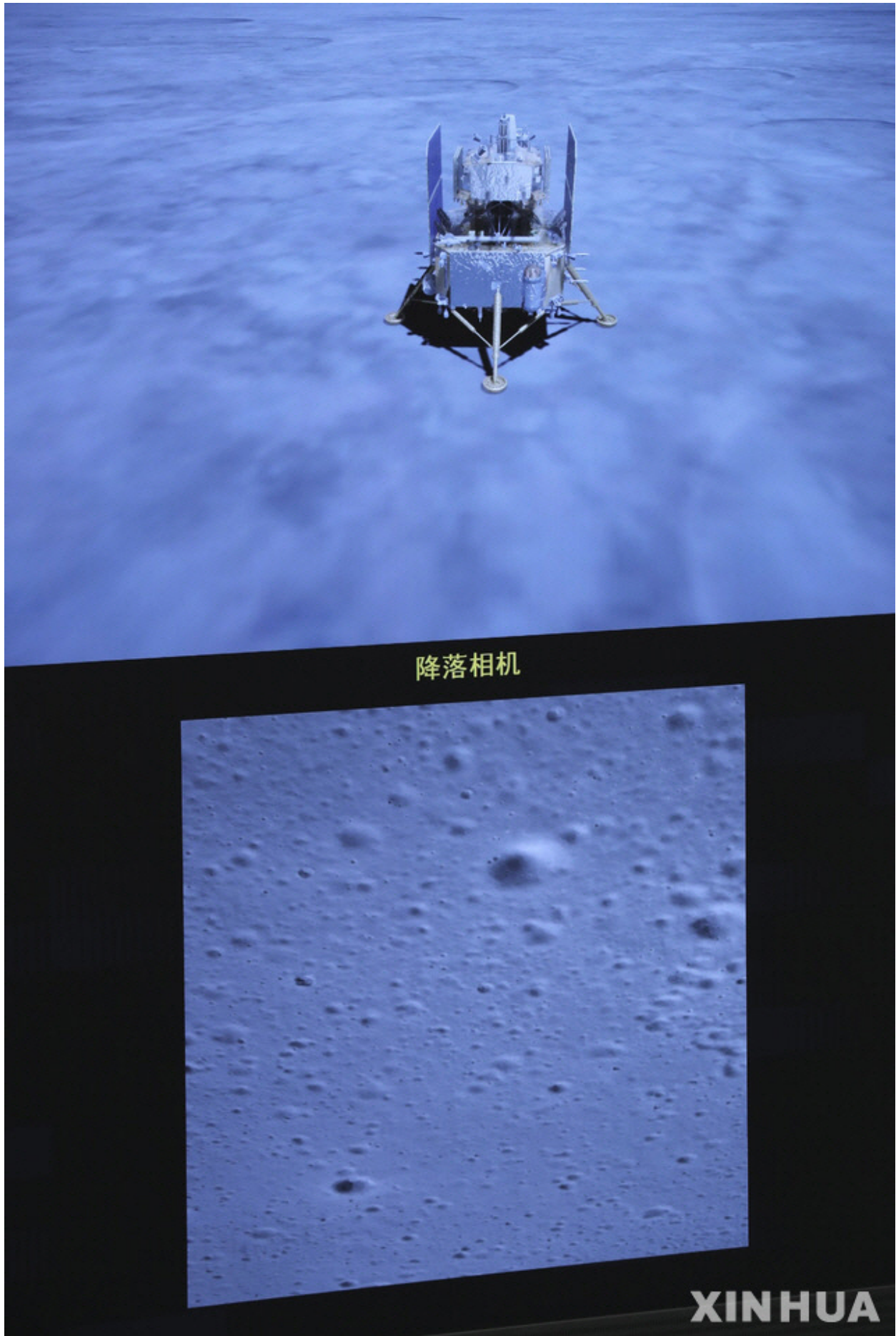
[경향신문]



창어 5호 탐지기가 달 표면 착륙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중국 국가항천국

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(嫦娥) 5호가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후 시료 채취에 성공했다고 중국 국가항천국(CNSA)이 밝혔다.

2일 CNSA에 따르면 창어5호는 오전 4시53분(현지시간) 창어5호의 착륙선과 상승기 결합체가 달 표면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을 마쳤다고 밝혔다. 창어5호는 궤도선과 착륙선, 상승기, 귀환기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.



이미지 신화통신

창어 5호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30분 중국 하이난(海南)성 원창(文昌) 우주발사장에서 최신 운반 로켓 창정(長征) 5호 야오(遙)-5에 실려 발사됐다. 일주일 여 만인 1일 오후 11시11분 달의 바깥쪽

표면에서 사전 선택한 지점에 안착했다. 앞으로 이틀 동안 창어 5호는 2kg의 달 흙과 암석 표본을 순차적으로 수집한다. 이를 위해 드릴 장치로 땅속 2m 깊이까지 팔 예정이다. 구소련이 과거 3차례에 걸쳐 330g의 흙을 가져온 것과 대비된다.



달 샘플 채취 후 지구 복귀 임무는 1960~1970년대 미국과 구소련 이후 40여 년 만이며, 중국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3번째로 이러한 임무 수행에 도전한다.

중국 과학자들은 해당 지역 암석과 토양이 최근에 생성된 만큼, 달의 화산 활동 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@kyunghyang.com

- ▶ 인터랙티브:자낭세에 묻다
- ▶ 경향신문 바로가기
- ▶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

©경향신문(www.khan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32&aid=0003046445>